

한미 FTA 1주년 미국내 동향

□ 미국내 한미 FTA 관련 행사 개최 현황

○ 국제전략문제연구소(CSIS)-한미경제연구소(KEI) 공동주최 FTA 1주년 기념행사

- 일시 : 3월 12일(화)
- 장소 : CSIS 컨퍼런스 센터, 워싱턴 D.C
- 참석 인사
: 존함퍼(CSIS 소장), 최영진(주미한국대사), 매튜 굿맨(전국무부 선임고문), 캐슬린 스티븐스(전 주한 미국대사), 카란 바타야(전 USIR 부대표), 스캇 밀러(CSIS 국제산업 석좌)
- 주요 내용
: 발효 1주년을 기념하여 한미간 FTA의 의미와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한편 한미간 향후 경제 관계를 전망
- 의사 일정
: 9:00 AM 행사 오프닝
9:10 AM 환영사
9:15 AM 한미 FTA 전문가 패널 토론

○ 미국상공회의소(USCC) FTA 1주년 기념행사

- 일시 : 3월 15일(금)
- 장소 : USCC, 워싱턴 D.C
- 참석 인사
: 테미 오버비(한미경제위원회 위원장), 에드 로이스(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), 최영진(주미한국대사), 웬디 커틀러(USIR 대표보),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(PIIE 소장), 에이미 잭슨(전 USIR 부대표보, AMCHAM 대표), 국제 무역·통상을 총괄하는 법률·금융·식품 기업 고위 책임자 등
- 주요 내용
: 발효 1주년이 되는 3월 15일, 한미간 FTA의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미국내 외교·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FTA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 논의

□ 미국무역대표부(USTR), 국제무역위원회(ITC) 진단 보고서 요청 관련

○ 서한 발송 배경

- 11년 10월 30일, 한미 통상장관간 교환된 서한에 의거, 한미 FTA 중소기업작업그룹(SME Working Group)이 설치됨
- 중소기업작업그룹은 △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생산,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및 평가, △한미 FTA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득을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구성됨
- ITC는 미국내 규정에 따라 국제통상 관련 협정에 대한 연구분석 기능을 수행했으며 과거 USTR의 요청에 따라 한미 FTA 영향평가 보고서(07년 9월), 중소기업 보고서(10년 1월) 등의 연구분석을 진행해왔음

* USITC 사이트: (http://www.usitc.gov/press_room/news_release/2013/er0207112.htm)

○ 서한 주요 내용

: 한미 FTA가 △미국 중소기업의 생산, 유통, 수출전략에 미치는 영향, △상품, 서비스 또는 지적재산권 분야가 한미 FTA 협정의 구체적 조항으로부터의 수혜의 범위, △미국 중소기업의 대한국 수출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조사할 것을 요청

- 보고서 발표 시기

: 보고서는 2013년 5월 1일까지 ITC가 USTR로 제출할 것이며 제출과 동시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임

* 현재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가 3월 14일,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진행될 예정임

□ 기타 한미 FTA 관련 최신 동향

‘12년 대한국 육류 수출실적

(단위 : 톤, 천불, %)

구 분	2011년(A)	2012년(B)	증감률(B/A)
	금액	금액	금액
쇠고기	653,029,791	522,455,533	△ 20%
돼지고기	509,905,812	391,308,071	△ 24.3%
가금육	127,672,586	90,762,472	△ 29.1%

*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 자료

1)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 25% 증가

○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 통계 세부 내용

-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금액은 총 588억8천만달러로 전년대비 3.9% 늘어났으나 대한국 수출은 423억1천800만달러로 전년대비 2.5% 감소함
- 이로써 지난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폭은 총 165억6천2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132억4천700만달러보다 무려 25%가 증가함
- 품목별로는 한미 FTA 협상의 쟁점 사안이었던 자동차 및 부품 부문에서 172억8천900만달러의 적자를 내 전년도 적자폭인 141억4천만달러보다 22.2%나 증가함

2) 미국, 대한국 육류 수출 급감

○ 지난 2월, 미국 소비자 단체인 Public Citizen 성명 발표

-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효과로 한국 수출시 40%에 달하던 소고기, 돼지 고기 및 가금육에 대한 관세 철폐로 톤당 1,300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 9천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함
- 그러나 미국산 육류의 대한국 수출은 현재 10% 가까이 감소해 다른 수출 품목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미국 육류 생산업자(소고기, 돼지 고기 및 가금육)들은 FTA 발효 9개월만에 1억3천6백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미정부를 정면 비판함

* Public Citizen 사이트: (<http://www.citizen.org/fta-trifecta-facts>)